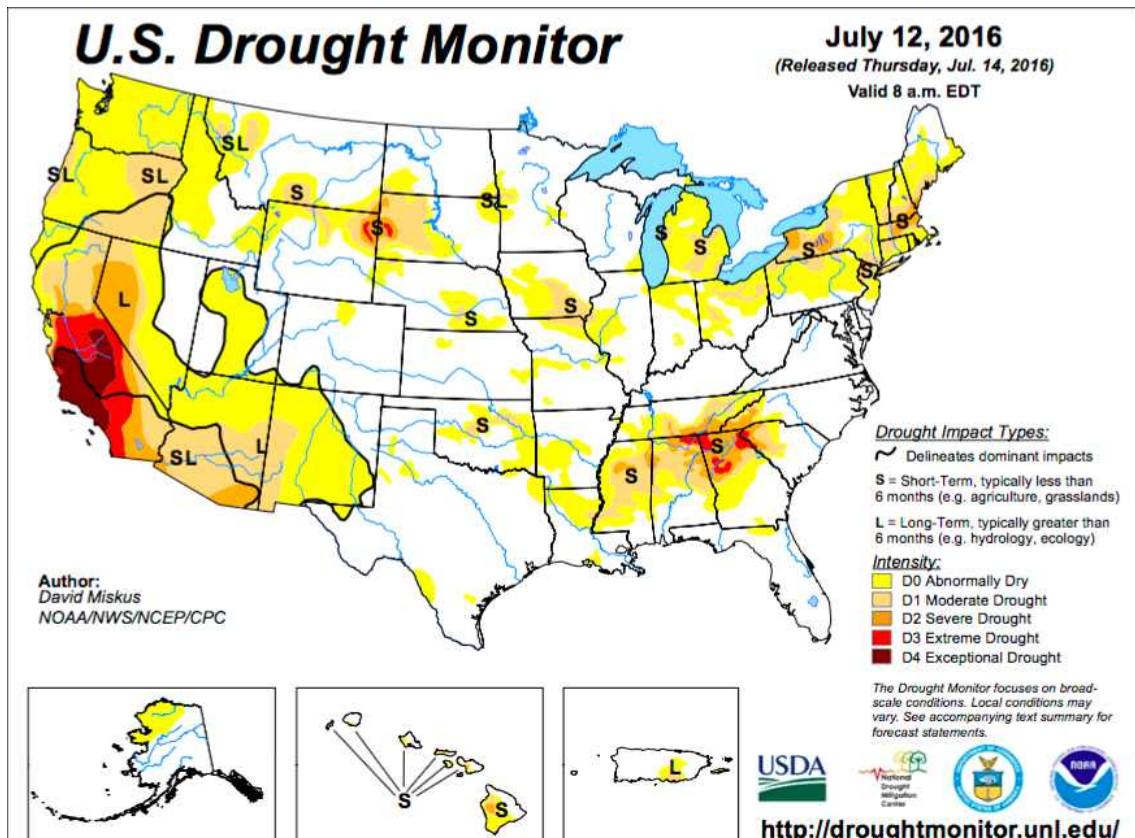


7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9)

□ 미국 기후 현황(7/10~7/16)

중서부 옥수수 및 대두 재배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집중되기도 했으며, 대평원과 남부에서도 비가 내렸다.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 일대에서는 몇 차례 짧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동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남부 고원 평원 일대에서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리조나 남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북부에서는 주 후반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를 회복했다. 워싱턴과 오레곤, 몬태나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기도 했다. 7월 10일 North Dakota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 미네소타에서부터 위스콘신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이틀 동안 8~10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11~7/17)

북서부에서부터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아이다호와 몬태나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낮은 날이 이어졌다. 남부와 미시시피강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날이 이어졌는데 뉴 멕시코와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9°F 이상 높았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일대에서는 6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수준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미시시피강 일부 지역과 대서양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 옥수수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9%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10%p 앞선 것이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silking 단계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이 26%p 증가했다. 응답자의 76%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7%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7월 17일 기준, 전국적으로 59%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10%p 앞선 수치이다. 18개 주 가운데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2개 지역을 제외한 주에서 지난 한 주간 개화기에 도달한 재배지 면적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높은 수준이다.

■ 겨울밀

7월 17일 기준 수확률은 76%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3%p 높은 수준이다.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에서는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각각 31%p, 23%p 앞서고 있다. 18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수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종료되었다.

■ 면화

7월 17일 기준 77%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p 앞선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28%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며,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낮은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54%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같은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3%p 낮은 수준이다.

■ 쌀

7월 17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41%가 head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1%p 앞선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4%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7/10~7/16)

■ 유럽: 서부 일대에 내리던 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부로 이동해갔다. 이탈리아 북부와 독일 남부 및 동유럽 일대에서는 25~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봄, 여름 작물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밀 등 수확을 앞둔 작물의 수확 작업이 비로 인해 지연되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북부 등에서는 주 초반 1~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스페인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으며, 남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9~41°C 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덥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 한 주간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및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높았다. 하지만 Caucasus 북부에서는 2~54mm 내외의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서부 및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로 인해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생육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반면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부 등에서는 10~9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의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 내린 비는 이례적인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25년 만의 최고 관측치로 기록되기도 했다. 중국 북동부 고원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2주간 누적 강우량이 15mm에 불과해 관개용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50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부와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퀸즐랜드 중부와 남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도 발생했다. 한 주간 기온 변화가 심했지만,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 아르헨티나: 남부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북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남부의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Buenos Aires 남동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겨울작물 성장에 필요한 수분 공급이 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옥수수와 면화의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Buenos Aires에서는 10°C 중반, La Pampa에서는 30°C 초반까지 기온이 올랐다. 북부의 Cordoba 인근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14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57%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3%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지난주에 내린 비가 이어졌다.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Parana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의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등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 밀 파종작업은 종료되었고, 옥수수의 개화율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42%이며, 그 밖의 이모작 옥수수 재배지의 84%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Sao Paulo, Minas Gerais, Espirito Santo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는데, Mato Grosso 및 북부 내륙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은 10mm 미만에 그쳤다.